

전남도 추경 신규사업 무더기 편성 적절성 논란

재정난 심각 불구 사업집행 타당성 분석 고려 안해
예산 확보 뒤 사업 추진 땀 연내 마무리 못할 수도

전남도가 편성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도의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정위 심사과정에서 주목된다. 가뜰이나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명확한 사업집행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자칫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올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9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신규 사업을 무더기로 편성했다. 우선, 도의회에 제출된 경제에너지국 예산의 경우에만 367억원(3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관광문화체육국도 신규로 편성한 1억원 이상 사업만

47건(168억)에 달했고 일자리정책분부는 18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고 기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경우가 9건(425억원)이나 됐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고 추경 예산 확보 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자칫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에너지국에서 증액해 편성한 예산(165억600만원)이 기존 예산(229억1900만원)에 견줘 50%가 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데 따른 아쉬운 반응도 나왔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확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광문화체육국도 290억 규모의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많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책 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이나 '목포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공모 사업에서 탈락해 감액한 것으로,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 개발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획행정위원회가 분석한 기획조정실 예산의 경우 이번 예산안에 148억원을 추가, 모두 79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해서도 최근 3년 간 집행한 평균 예비비(140억원)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정책위원회가 추진중인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과 관련, 지난해만 전체 가입자의 23%(135명)가 중도해지

를 신청한 점을 들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수산위원회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거나 200억원 넘게 감액되는 사업 등 부적절한 예산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농업기술원의 전남 대표 벼 품종 개발·확산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 향후 예정위원회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7조 9366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9일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10일 예정위원회 회를 거친 뒤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이용섭 광역단체장 지지율 1·2위

리얼미터 조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장은 두 달 연속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김 지사의 지지율은 58.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이용섭 시장이 58.2%로 지난 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1.5%p 하락했지만 9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를 기록한 이용섭 시장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3.4%p 오른 58.2%다. 김 지사와의 격차는 0.1%p를 기록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과거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SOC 사업 등의 국비를 최대 확보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장의

지지율 상승은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등 취임 이후 각종 우려가 제기됐던 지역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와 이 지사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가 54.5%로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제주 원희룡 지사(50.5%)와 강원 최문순 지사(50.5%)가 공동 4위, 전북 송하진 지사(49.3%)가 6위를 기록했다. 세종 이춘희 시장(48.9%) 7위, 충북 이시종 지사(47.9%) 8위, 서울 박원순 시장(46.5%) 9위, 인천 박남춘 시장(45.5%)이 10위이었다.

이어 대구 권영진·충남 양승조 시장이 45.1%로 공동 11위, 경기 이재명 지사가 44.1%로 13위, 대전 허태정 시장이 43.7%로 14위, 부산 오거돈 시장이 43.5%로 15위, 경남 김경수 지사가 41.8%로 16위, 울산 송철호 지사가 32.6%로 17위를 기록했다. 전체 시도지사 평균 지지율은 47.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았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북구청, 산불 피해돕기 생수 지원 9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직원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보낼 구호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이번 구호품은 북구 마중물 나누미 회원인(주)장안(대표 설구호)과 Y마트(대표 김성진)가 각각 5백만원 상당의 세탁세제와 생수를 후원했다.

광주시 추경 5208억 증액 시의회 제출

수영대회 지원·일자리 중점

광주시는 9일 2019년도 본예산 5조830억원에 비해 5208억원(10.2%) 늘어난 5조60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4078억원

(9.9%) 증액된 4조5471억원, 특별회계는 1130억원(12%) 늘어난 1조5067억원이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취득세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가 세입으로 본 예산 대비 1331억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정 등으로 1486억원 증액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확대로 1609억원, 국고보조금은 634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비 210억원, 대회시설 개보수 47억원 등 389억원을 수영대회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9억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50억원 등 일자리 창출 60개 사업에 98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본예산 9267억원 대비 11% 늘어난 1조2522억원이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미세먼지 감축 사업 49억원, 거점지역 재난 안전

시범사업 5억원 등 438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급여기금 195억원, 직장어린이집 건립 4억원 등 사회복지 예산에 96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주의 문화콘텐츠 제작 13억원, 전일발달 리모델링 45억원, 도서관·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 65억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82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광주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3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정가

임미란 광주시의원, 청년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3) 부의장은 9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광주여성재단이 함께 '광주광역시 청년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임미란 부의장은 "이 토론회를 통해 광주지역 여성, 특히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가 처해 있는 주거빈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 안전문제 등 현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차영수 도의원, 65세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

전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는 9일 차영수(민·강진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전날인 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미숙 및 인지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



허를 반납할 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남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 대비 2.23배 높고 교통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